

순천시 주민 자율 공유주차장 조성 호응

공터·자투리 땅 활용 올해 512면 만들어 도심 주차난 해소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면제...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펼쳐

순천시가 도심지역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빈 공터와 자투리 땅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도심지역 주택가나 상가지역 생활도로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인해 보행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도 빈번해 도심 주차장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높은 부지매입 비용으로 인해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나온것이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이다. 시는 도심 내 공터나 자투리 땅 등을 찾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고 대신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28개소에 512면 규모의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은 조성했다. 또 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시는 현재 원도심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 5곳에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1면당 최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유주차장은임시주차장이기는 하지만 1면당 40여만원이면 조성 가능하다. 현재까지 순천시내에 512면을 조성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2억원 정도다.

시가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이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



순천시가 도심지역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신설된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순천시 제공)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가 대부분 관리가 되지 않는 도심내 빈 공터로 경작을 하거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으나 민원의 대상이 됐지만 주차장 조성과 함께 환경정비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는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과 함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과 부설주차장 추가설치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주차장 설치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주차공유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축계획이 없는 도심내 빈 공터를 공유주차장으로 제정하거나 담장이나 대문을 열어 내집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공유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좋은 정책 시민과 함께 만들어요”

순천시 제안사이트 ‘소통1번가’·‘공직노하우플러스’ 개설

순천시는 민선 7기를 시작한 7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순천시민 정책 제안사이트 소통1번가와 공직노하우플러스’를 개설하고 순천시의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한 소통플랫폼을 운영한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정책 제안사이트 ‘소통1번가’와 ‘공직노하우플러스’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해 좋은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허석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민 모두가 시장이 돼 새로운 순천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통1번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은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 노하우 플러스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창구로 시민들의 의견과 공직자들의 경험이 더 큰 순천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시민소통 플랫폼은 시 홈페이지 사이버 시장실 ‘힘이 되는 시장 허석’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순천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놓치지 않고 꾸준한 소통과 공감대를 위해서 홈페이지 단장 등 지속적인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석 시장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민선 7기의 시정목표를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로 정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순천시의회 의장 서정진 의원·부의장 강형구 의원

순천시의회는 최근 제223회 임시회 열어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서정진(52·3선) 의원을, 부의장에 강형구(55·3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서 의원은 단일 후보로 출마해 출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22표를 얻어 당선됐다.

의회 운영위원장에 허유인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 나안수 의원, 문화경제위원장에 이복남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남정욱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정진 의장은 “동료 의원 각자의 생각을 잘 모아서 시민을 중심으로 의결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다



서정진 의장 강형구 부의장

른 당이라는 소외감 없이 동료의원으로서 연대감을 가지고 정의로운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순천시·의회, 순천대 인재 육성 장학금 50억 지원



지난 9일 순천시청에서 박진성 총장과 허석 시장, 서정진 의장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순천대학교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와 시의회, 순천대는 지난 9일 순천시청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시는 매년 10억원 범위에서 5년간 총 50억원의 인재 육성 장학금을 순천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대는 지역 우수학생을 유지·양성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허석 시장장은 “순천시는 순천대학교 천연물약소재개발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순천대가 교육의 도시 순천의 교육거점으로 거듭나 지역과 대학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은 “우리 지역의 큰 자랑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순천대학교가 지역 명문 대학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성 순천대 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한 시와 시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인재 양성에 전력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1960년대 순천읍내거리와 서울 변두리, 달동네를 재현한 순천드라마촬영장이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새롭게 단장해 관광자원으로 거듭난다. (순천시 제공)

순천 드라마촬영장 10월까지 새 단장

순천시는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드라마촬영장 내 시가지 및 달동네 세트장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입찰방식에서 탈피, 협상공모 제안방식으로 지난 4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시비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05년 준공 당시 임시가설건축물로 건립한 시설물의 노후화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정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는 최근 관람객 편의를 위해 드라마 촬영장에 철쭉동산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체류형관광 유도를 위해 실내체험장 건립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드라마촬영장을 찾는 관광객은 2016년 65만 명, 2017년 74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과거로 여행은 느낌으로 추억과 향수를 체험하는 도심 대표 관광지로 더욱 발돋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드라마촬영장은 60~70년대 순천읍내거리, 서울 변두리, 달동네를 재현한 곳으로 2006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 세트장 만들어져 ‘실인자의 기억 방’과 ‘V.I.P’ 등 총 47편의 영화 및 드라마를 촬영 한 곳으로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순천시, 여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선정

순천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안을 반영해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317개 과제(법령 144, 계획 9, 사업 161, 홍보 3)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반영했으며 지난해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은 전년도 대비 35.4% 상승했다. 올해 성 인지에선 연계율은 전년 대비 61%포인트 증가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